

빈병 보증금 환불 거부하면 과태료 300만원

업소 3분의 1 요구 불응

환경부 5천곳 단속 강화

신고 보상금 최대 5만원

빈병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는 소매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올 들어 소주병·맥주병 등 빈 용기 보증금이 인상된 이후 곳곳에서 환불 및 수거를 둘러싸고 적잖은 마찰음이 벌어지면서 환경부가 단속 강화에 나선 것이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1월부터 빈 용기 보증금이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올랐지만 현장에서는 보증금 환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6일 빈병 반환 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해 그동안의 계도 중심에서 벗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보증금 환불 거부 업소 비율



단속 대상은 빈병 반환 무단 거부와 반환 요일 또는 시간 제한, 하루 30병 미만에 대한 구입영수증 요구, 1인당 반환 병 수 제한 행위 등이다. 보관 장소 부족을 내세우거나 해당 소매점에서 판매한 병이 아니라며 환불을 거부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적발된 소매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보상제도에

따라 소매점에서 부당하게 빈용기 반환 및 보증금 환불을 거부할 경우 이를 신고하면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이달부터 시민단체와 함께 빈병 반환 실태 모니터링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소매점에 대한 행정지도와 단속 강화를 요청하고 도매상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회수를 통해 소매점의 보관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소매점에서 빈용기가 과다 보관되는 경우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에 신고하면 인근 제조사·도매상이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된다. 환불거부를 당했을 때 도 상담센터 및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된다.

최근 녹색소비자연대가 수도권 소매점 2052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보증금 환불 의무에 대해서는 99.8%가 인지하고 있으나 환불을 거부하는 업소가 28.0%에 달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거부율은 일반 소매점(6%)보다 편의점(47%)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환경부는 이달 중 소매점과 식당 등 5000곳을 대상으로 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매점 환불 참여는 빈병보증금 제도의 핵심이자 법적 의무”라며 “소비자의 권리보호와 자원 재활용을 위해 모든 소매점이 보증금 환불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빈용기보증금제도는 자원재활용법(15조의 2)에 따라 소비자 부담의 빈용기보증금과 제조사 부담의 취급수수료라는 경제적인 유인을 통해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는 제도다. 소주·맥주병 등을 대상으로 제품 출고가격에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더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소비자가 빈병 반납시 보증금을 반환한다.

한편 환경부는 빈병보증금 인상이 편익 등 일부 소매점 등에서 술값을 100원씩 인상한 사례와 관련, 보증금은 비교해야며 전액 환불가능한 금액으로 업계의 이익과 관련된 제품 가격과는 별개라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국립공원연구원 관계자가 지리산에서 구상나무 시료 채취를 하는 모습. <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

구상나무 생존 조건 나이트로 분석

봄 수분·태풍 결정적 영향

구상나무 나이테로 지난 150년 동안의 기상정보를 추적해 나무의 생존조건을 파악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6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공단 소속 국립공원연구원원이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 구상나무 나이테를 연구한 결과 봄철의 수분 공급과 태풍이 이 나무의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공원연구원원은 나이테 산소동위원소 분석기법을 도입해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국내에서 처음으로 150년(1864~2015년) 동안 살았던 구상나무 82그루의 나이테를 분석해 이들 나무가 살아온 과정을 추적했다.

나이테는 탄생부터 죽음까지 나무가 살아가는 동안 연속적인 생육 정보를 담고 있는 일종의 '블랙박스' 역할을 한다. 연구원이 죽은 구상나무의 나이테 정보를 기상청 자료와 비교해 분석한 결

과, 겨울철 뿌리 보온과 봄철 수분환경이 구상나무 죽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겨울철 눈은 구상나무 뿌리가 얼지 않도록 보온 역할을 하며, 봄철에 천천히 눈이 녹으면 수분 공급 역할도 한다.

이번 연구결과, 구상나무의 고사 이유는 태풍 등 급격한 기상변화로 단시간에 죽는 유형과 겨울철 이상 고온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말라죽는 유형 등 2가지 형태로 분석됐다.

겨울철에 눈이 적게 내리거나 기온이 높아져 눈이 빨리 녹고 봄 가뭄이 심할 경우 나무가 서서히 죽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풍 등 급격한 기상변화 때 나무가 단기간에 죽기도 했다는 것이다.

구상나무는 한국에만 자생하는 고유종으로, 전 세계에서 한국나무(Korean Fir)로 불린다. 기후변화에 취약해 개체군이 축소되면서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위기종으로 등재됐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100년 만에 백두대간 품 안긴 '백두산 호랑이'

수컷 2마리 봉화수목원 이송

'백두산 호랑이'가 지난 1월 국립백두대간수목원(경북 봉화) 호랑이 숲에 안착했다.

백두산 호랑이가 한반도 남쪽 숲에 방사되는 것은 100여년 만에, 안정과 적응 훈련을 거친 뒤 관람객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한국에서 발견된 마지막 백두산호랑이는 1921년 경주 대덕산에서 잡힌 호랑이로 알려져 있다.

7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청은 백두산호랑이 수컷 2마리가 지난달 25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 숲으로 안전하게 이송했다.

주인공은 경기도 포천 국립수목원의 '두만아'(15살)와 대전 오월드에 있던 '금강이'(11살)로 두 마리 모두 한·중 산림협력회의를 통해 산림청이 중국에서 기증받은 호랑이다. 예민하기로 유명한 호랑이를 다른 시설로 이송하는 작업은 007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극도로 조심스럽게 진행됐다.

산림청은 호랑이 이송 작전 성공에 대해 한반도에서 사라졌던 백두산 호랑이를 백두대간 숲에 처음 방사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하며 전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유전형질이 우수한 호랑이 10여마리를 추가 도입할 계획을 세웠다. 이번에 호랑이 방사된 경북 봉화군 소재 '호랑이 숲'은 국내에서 호랑이를



전시하는 가장 넓은 곳(4.8ha)이다. 자연 서식지와 최대한 유사한 환경으로 만들어졌다.

조성이 끝나면 기존 동물원 우리에 갇힌 호랑이 대신 숲 속에서 뛰노는 백두산 호랑이를 만나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국립수목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진료와 사육환경을 갖추고 24시간 체제로 호랑이를 관리, 보존할 계획이다.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호랑이 숲 내에서만 방사하고 탈출할 수 없도록 안전펜스를



산림청은 백두산 호랑이 수컷 2마리가 지난달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백리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 숲으로 안전하게 이송했다고 최근 전했다. 1921년 경주 대덕산에서 잡힌 마지막 백두산 호랑이(오른쪽). <산림청 제공>

설치했다. 현재 국내에는 50여마리의 백두산 호랑이가 전국 동물원에서 사육되고 있다.

호랑이 숲이 있는 산림청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아시아 최대인 5179ha 규모로 조성됐다. 전시·연구·휴양 기능이 복합된 새로운 개념의 수목원으로, 지난해 9월 임시 개관했으며 운영상태 점검 후 올해 정식 개장한다.

한반도 산림자원을 지키는 대한민국 대표 수목원으로 백두산 호랑이를 방사할 호

랑이 숲과 세계 최초의 산림 종자 영구 저장시설인 '시드 볼트', 기후변화지표식물원, 고산식물 연구동, 야생화 언덕 등을 갖췄다.

백두산호랑이는 '한국호랑이'라고도 불린다.

세계에는 수마트라 호랑이, 인도벵골호랑이, 말레이호랑이, 아모이남중국호랑이, 인도차이나호랑이, 시베리아(백두산)호랑이 등 6종류의 호랑이가 살고 있다. 한반도를 비롯해 만주와 연해주에 살고 있는 백두산호랑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열대지방에 살고 있다.

백두산호랑이는 열대지방 호랑이와 다른 점이 많다.

우선 몸무게가 최대 300kg 이상으로 열대지방 호랑이에 비해 30% 이상 크다. 활동영역도 인도의 벵골호랑이가 20㎢지나 백두산호랑이는 1300㎢로 70배나 넓다. 3개도 4개 군에 걸쳐 있는 지리산 국립공원의 면적이 472㎢인 것과 비교하면 백두산호랑이의 활동영역을 겨우 가능할 수 있을 정도다.

백두산호랑이는 우리나라에서 사라졌을 뿐 멸종된 것은 아니다.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와 먹이감 감소, 밀렵으로 멸종 위기에 있지만 아직 450마리 정도의 백두산호랑이가 연해주를 중심으로 러시아, 중국, 북한 접경에 살고 있다. 활동영역을 감안하면 백두산호랑이가 한반도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고 산림청은 전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영산강환경청, 화학공장·상수도시설 등 379곳 안전진단

영산강유역환경청이 6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54일간 국민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4대 환경분야 379개소를 선정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4대 환경분야 379개소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45개소, 상수도시설 242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88개소, 폐기물 매립장 4개소 등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각지대를 중점점검한다. 특히 안전뿐만 아니라 안전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점검을 할 계획이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의 불법 판매·유통 행위 및 운반차량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상수도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폐기물 매립장은 해빙기 안전대책과 연계하여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뿐만 아니라 안전규정 준수 여부, 유지관리체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점검결과 단순·경미한 사항은 신속히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하고, 중대 사항은 위험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경매 추천물건

- ★ 광주 광산구 쌍암동 중심상업지역 내대지 건축가능(모든업종가) 대지 509,9㎡ 감정가 5억5천5백 ▶ 최저가 3억8천9백
- ★ [건물] 광주 동구 공동 구시청사거리 남동측 주거용오피스텔(5층) 토지 712,9㎡ 건물 1,545,04㎡ 감정가 2억9천 ▶ 최저가 14억9천
- ★ [건물] 광주 서구 매월동 농수산물도매시장부근 상가건물(4층) 토지 865㎡ 건물 1,514,31㎡ 감정가 20억7천 ▶ 최저가 14억5천
- ★ [건물] 전남 순천시 낙안면 이곡리 교육시설 현게스트하우스 낙안읍성안근 토지 13,179㎡ 건물 1,302,76㎡ 감정가 16억2천 ▶ 최저가 9억1천
- ★ [건물] 전남 순천시 장천동 상가건물(4층) 근린시설 토지 423,1㎡ 건물 1,165,6㎡ 감정가 12억5천 ▶ 최저가 5억6천3백
- ★ [종교시설] 전남 여주시 돌산읍 평사리 개인사찰 토지 1,587㎡ 건물 514,19㎡ 감정가 17억1천 ▶ 최저가 7억6천6백
- ★ [양어장] 전남 고흥군 도화면 구암리 현양어장시설 토지 6,891㎡ 건물 3,315,5㎡ 감정가 8억8천4백 ▶ 최저가 4억9천5백
- ★ [건물] 전남 보성군 회천면 동유리 2층 근린주택 (1층 상가) 토지 496,3㎡ 건물 280,67㎡ 감정가 3억3백 ▶ 최저가 2억1천2백

투자 추천 물건

- ★ [토지] 광주 북구 신안동 내대지 준주거지역 대지 508㎡ 왕복6차선대로접 카센터 등 투자최적함
- ★ [토지] 전남 영암 신북면 신북면사무소인근 일반상업지역 대지 2,535㎡ 무인텔, 대형마트 최적합부지 투자가치높음
- ★ [토지] 광주 북구 삼각동 31사단 정문 인근 전 1,326㎡ 1층일반주거지역 주위 식당상업중 투자적함
- ★ [토지]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인근 바다, 한라산조망, 펜션, 빌라 부지적함 토지 4,000㎡ 주택 28세대가능 상가건물로 교환 원함
-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 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무수 매매가 상당후 결정
- ★ [토지] 광주 북구 화암동 무등산공원내 담 1,700㎡ 주말농장 및 농지원부 가능 매매가 상당후 결정
- ★ [건물] 광주 서구 매월동 자동차매매단지 옆 토지 5,359㎡ 건물 595,4㎡ 2층 공장 매매 평당2백5십만
- ★ [건물] 광산구 첨단롯데마트부근 지하~7층 요양병원 대지 1,350㎡ 건물 1,192㎡ 임대안고도 가능 매매 60억 (협의가)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5층 대지 573㎡ 건물 2,215㎡ 매매 39억 (보3억3천만 월1천8백10만 포함)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병원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7층 대지 602㎡ 건물 2,830㎡ 매매 53억 (보5억2천만 월2천4백20만 용25억포함)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상5층건물 대지 476㎡ 건물 1,236㎡ 매매 24억(보2억7천만 월1천1백5십만 용6억9천만 포함)
- ★ [건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4층건물 대지 780㎡ 건물 1,830㎡ 매매 48억 (보5억3천 월2천2백 포함)
- ★ [건물] 서구 금호동 아파트밀집지역 사우나·헬스 6층건물 대지 1,896㎡ 건물 1,320㎡ 1층 점포다수 고수익형 매매 54억
- ★ [건물] 광산구 공황에서 송정역 대로변 지상6층 병원건물 대지 958㎡ 건물 2,570,58㎡ 매매 35억
- ★ [건물] 북구 용두동 양산사거리부근 대로변 메디컬센터 입점중 대지 929㎡ 건물 895㎡ 매매 63억
- ★ [건물] 서구 풍암동 동부센트레빌부근 코너 위치우수 대지 298㎡ 건물175,9㎡ 4층건물(용6억포함) 보증금7천 월4백6십 매매 13억5천
- ★ [건물] 동구 동명동 사우나상가5층건물 위치좋은 대로변중형형상업중 대지 452㎡ 1,464㎡ 매매 16억 (용5억포함)

공인중개사 김재훈 010-5225-2069 배우면서 함께 일하실 공인중개사 구함 062-714-2258